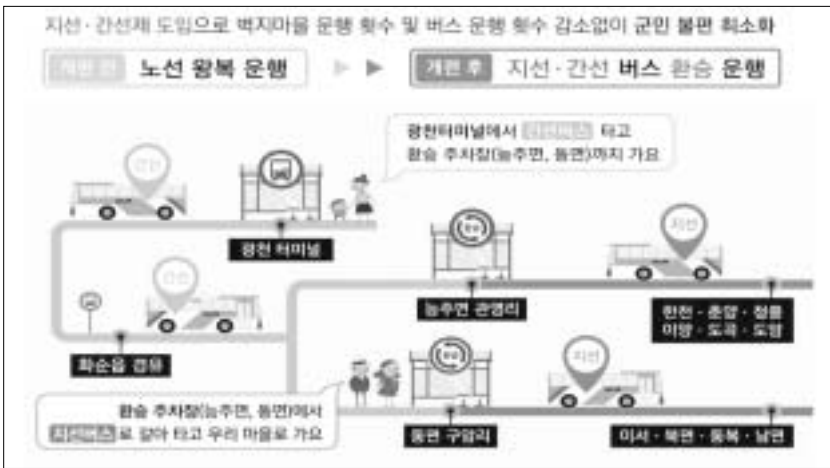


화순군, 내달부터 군내버스

‘지선·간선제’ 도입한다

버스 운행 횟수 감소 등 대응...운행 체계 개편



화순군이 10월 1일부터 군내버스 노선체계를 개편해 ‘지선·간선제’를 도입한다.

간선버스는 광주-환승 정류장 2곳(능주 관영과 동면 북암)만 오간다. 지선버스는 환승 정류장에서 방면별로 정해진 노선에 따라 운행한다. 기존 운행 체계와 달리, 광주에서 각 마을을 오가는 이용

객은 환승 정류장에서 환승해야 한다.

군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버스 운전원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군내버스 운행 횟수 감소, 벽지마을 운행 횟수 축소와 폐지 등에 대응하고 군민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체계를 개편했다.

현재 군내버스는 광주에서 출발해 화순의 각 마을 구간을 왕복 운행하고 있다. 이와 달리 ‘지선·간선제’는 광주(간선버스)에서 출발해 환승(능주 관영·동면 북암) 정류장에서 방면별 운행 노선(지선버스)에 따라 환승하는 운행 체계다.

군은 지선·간선제는 환승 정류장에서 버스를 갈아타는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운행 체계 개편이 버스 운행 환경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선·간선버스 운행이 군민과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지선·간선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1000원 버스 운행(버스 요금 단일제)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지선·간선제와 1000원 버스 운행 등으로 군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버스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 기자

‘2019 여수마칭페스티벌’ 성료



여수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순신광장과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펼쳐진 ‘2019 여수마칭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5일 밝혔다.

‘여수, 바다 & 아리랑’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서울 영광고 마칭팀, 해양경찰교육원 의장대, 인도네시아·태국 마칭팀 등 국내외 15개 팀 800여 명이 참가했다.

20일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개막식에는 시민과 관광객 4000여 명이 몰렸고, 21일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진행된 관악페스티벌에는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수시는 올해 여수마칭페스티벌을

벌을 참여형 축제로 만들고자 포스터 공모전, 포토존 설치, 행사 포스터 제작 등을 했다.

서울에서 온 한 관광객은 “여수 밤바다와 어우러진 화려한 마칭공연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유관기관, 자원봉사자의 지원과 성원 덕분에 행사를 훌륭하게 치를 수 있었다”면서 “여수마칭페스티벌이 지역 대표 예술공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여수=송기홍 기자

광양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원탁 토론회 개최

광양시는 지난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시민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탁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과 학생 100여 명은 광양시가 추진 중인 테마파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다.

시는 광양은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낼만한 공간이 없다’, ‘어디에 내놓을만한 관광 시설 하나가 없다’는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하고, 문화와 예술, 관광을 시너지 시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시민토론회 및 심포지엄 등을 통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

이번 시민 토론회는 광양 가족형 어린이 테마파크의 실수요자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향후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운영, 기본 계획에 반영될 높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각 주제에 대한 본인의 경험과 의견을 제시하며, 테마파크가 광양시민은 물론 전국의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숲속 캠핑장 ▲숲속 생존 공간 생존 게임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하는 자동차 경주장 ▲야경과 함께하는 광양타워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정현복 시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전문가의 지문을 받고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시민과 함께 광양의 명품 ‘테마파크’를 만들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불멸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레프리카 체험展’

내달 1일부터 보성군립백민미술관



보성군 백민미술관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1달간) ‘빈센트 반 고흐 레프리카 체험展’이 열린다.

이번 전시는 고흐가 10년 동안

남긴 879점의 회화 중 대표작품 70여점을 선정하여 원작과 동일한 크기와 색채, 질감까지 살려 특수하게 제작한 레프리카를 전시해 관람객들에게 원화의 감동을 그대로 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전시 기획으로 ‘Do Touch(작품을 만져 보세요!)’를 준비해 작품의 질감을 직접 체험할 수 있으며,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서는 내손으로 만든 고흐의 방 매직큐브를 가지고 작품들을 맞춰 보며 활동이 준비돼 있다.

이번 레프리카 전은 미술창작 전시공간 활성화 지원 공모사업 일환으로 실시된다.

또한, 고흐의 작품 세계를 관람객들이 더 쉽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고흐의 예술 활동을 5개의 색으로 나눠 시대별, 의미별로 작품을 전시해 한 눈에 고흐의 예술 세계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영혼의 화가’, ‘태양의 화가’, ‘불멸의 화가’ 등 다양한 수식으로 불리는 반 고흐는 선명한 색채와 격렬한 붓 터치로 특유의 불꽃같은 정열을 쏟아냈다.

살아생전 단 한 점의 작품만이 팔렸던 이 화가는 37년의 짧은 생애 동안 극심한 가난과 정신 질환에 시달리다 결국 권총 자살로 비극적인 삶을 마감한 불우의 천재 화가였으나, 현대미술의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며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사랑을 받고 있다.

보성=안규일 기자

곡성군, 블루베리 연구회 선진지 현장교육 실시



곡성군이 지난 23일 블루베리 농업인연구회원과 함께 선진지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이번 벤치마킹은 블루베리 조기재배 기술 및 블루베리 신품종 정보 수집을 위해 보성군 진선블루베리 농장과 무안군 무시아 블루베리 농장 두 곳을 견학하는 일정

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농장 체험과 함께 시례 중심으로 진행된 현장교육에 대부분 만족해하는 분위기였다.

곡성군은 블루베리 경쟁력을 확보를 위해 연중 출하시스템을 갖추는 등 블루베리 조기출하 면적 확대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도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다겹 보온 커튼, 난방기, 관비기 등을 지원했다.

또한 전정기술지원단 운영, 농업인연구회 현장교육 등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전폭 지원하며 블루베리 조기출하 농가의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곡성군 블루베리농업인 연구회 박광순 회장은 “효율적인 조기 재배시설 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블루베리 토양관리 관련 정보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벤치마킹 소감을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견학을 통해 블루베리 조기출하 발전 방안과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우리군 블루베리 농업이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곡성=김광희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부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번호사)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스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사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